



카트 읽는 남자

외른 회프너 지음·염점용 옮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직업이나 종교를 통해, 또는 소속 단체를 통해 알 수 있다. 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예를 들면 이력을 보고서도 가능하다.

지난 2015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에서는 일본 작가 오타케 신로의 '몽 세리: 버려진 오두막으로서의 자화상'을 선보였다. 허름한 나무 집의 벽면에는 머플러와 페그롤 같은 잡동사니가 붙어 있다. 이밖에 페타이어, 잡지, 배터리, 공구 등 다양한 물건들이 방 한켠에 놓여 있다. 언뜻 저장장박증 환자의 집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엄연히 작품이다. 작품명은 쓰나미에 휩쓸려 자취를 감춘 스내바의 이름이다. 또한 버려진 폐품들이 자신의 역사와 기억을 간직하는 저장소가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당신이 산 것을 말해주세요 ... 당신이 누군지 알려줄게요



'카트 읽는 남자'의 저자 외른 회프너는 마트나 슈퍼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과 사회를 읽는다. 마트 매장 내부와 장을 보는 주부들.

마트와 대형 슈퍼에서 장을 보는 이를 통해 그 사람과 사회를 읽어내는 이가 있다. 그는 특정한 공간에서 장보기를 하는 사람을 보며 타인과 세상을 인식한다.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에서 이동성, 사회, 미래에 관한 테마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외른 회프너가 신간 '카트 읽는 남자'를 펴냈다. 저자는 '광역 열차 속의 사회학'이라는 주제로 독일 과학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이언스 슬랩에서 우수한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책은 마트와 슈퍼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카트를 매개로 오늘의 시대를 탐색한다. 저자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성격과 취향, 기호를 파악한다. 사회적으로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도 알아낸다. 저자가 마트에 초점을 맞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 자연스럽게 행동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은 타인을 꽤 자세히 관찰해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자 이상적인 여건을 갖춘 곳이다. 매장의 그토록 많은 낮은 사람들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꾸밈없이 행동한다. 슈퍼마켓에서 가장 잘 보는 것은 백화점 쇼핑과 같은 체험이 아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장소에서 하는 개인적인 일상 활동이다." 저자는 자동차를 끌고 온 여성을 통해 시민 중산층의 삶을, 자유분방한 옷차림에 무회화과 짬을 찾는 남성에게선 힙스터(자신만의 문화를 추구하는 집단)의 태도를 엿본다. 비윤리적인 쇼핑 태도를 지적하는 부인의 모습에서 환경주의자의 일상을 가늠한다. 장보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열 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시민 중산층, 디지털 원주민, 사회생태적 환경주의자, 부수적 기득권층, 진보적 지식인층, 순응적 실용주의자, 전통주의자, 성과주의자, 쾌락주의자, 불안정층' 등으로 이들은 독일 사회를 이루고 일궈온 각계각층이다. 저자가 이들을 관찰하는 방식은 구매된 물품에 대한 결눈질과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다. 일테면 이런 식이다. 주차장에서 청

강의실 밖으로 나온 사회학자 마트와 슈퍼 찾아가 구매 물품들 결눈질·대화 통해 타인과 사회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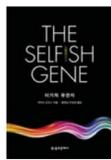
바지에 가죽 구두 재킷을 입은 주부가 쪽지에 적어온 목록대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고 치자. 카트 안에는 얇게 저민 돼지고기와 시리얼, 딸기 한 팩, 샴페인 한 병 등이 담겨 있다. 관찰이 끝나면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한다. 시시콜콜해 보이는 이런 과정은 평균적인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 즉 과거와 현재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자유로운 관찰과 평가는 결코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니다. 단지 마트를 배경으로 사회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 그칠 뿐이다. 타인과 사회를 유연하게 바라보는 데 방점이 놓여 있다. "이 책에서 오늘 무언가를 배우려 한다면, 그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서랍장을 열도록 하자. 서랍장과 마주했을 때 그들을 서랍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면 혹은 넣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파우제-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 흥영남·이상임 옮김

과학을 넘어선 우리 시대의 고전 '이기적 유전자' 40주년 기념판이 출간됐다. 이기적 유전자는 현대 생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세계적인 석학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작으로 다윈의 '적자생존과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유전자 단위로 끌어내려 진화를 설명한다.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지난 2013년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젝트'지가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지성'에 뽑힌 바 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내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바로 그런 책이다"라고 밝혔다. 도킨스는 책에서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라고 선언한다. 인간이 "유전자에 미리 프로그램된 대로 먹고 살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계를 비롯해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책은 40년 동안 언어적 학계와 언론의 찬사와 논쟁 속에 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과학계 고전으로 자리잡았다. 저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이를 연장한 개념인 '밈' (문화유전) 이론과 후속작 '확장된 표현형'의 선구적인 개념도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주년 기념판답게 새 에필로그를 수록하고 새 디자인과 판형으로 단장한 점도 눈길을 끈다. <울문문화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쇼룸

김익경 지음

전시된 아름다움, '쇼룸'을 향한 프랜차이즈형 욕망을 다룬 소설이 나왔다. 2014년 한국경제 신춘문예에 장편 '청춘 파산'이 당선되면서 창작활동을 했던 김익경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 '쇼룸'은 물건으로 설명되는 삶을 그린다. "오늘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 가운데 '소비'를 빼놓을 수 없다. 크노 파이프 소파와 헬머 서랍장, 이케아와 다이소, 고시원과 전세 보증금으로 확인 가능한 값싼 슬픈 정체성이 작품의 이면에 드리워져 있다. 소설집 제목 '쇼룸'은 소설 속 인물들이 지니는 투명한 욕망을 상징한다. '쇼룸' 속 등장인물들의 소비는 더 높은 가격대의 고급 가구 브랜드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케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인물들의 소비 양상이 유사한 것은 아니다. 작가가 그리는 이집트, 정춘은 이케아 피플 중에서도 위축돼 있다. 수록된 작품 가운데 '이케아 룸'의 '쇼'는 열여덟살 연상의 유부남과 연애 중이다. 또래 남자를 사귀는 친구들이 선물로 '목도리나 싸구려 목걸이'를 받을 때 자신은 '해외여행 혹은 오피스텔'을 받는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오펜'와의 관계를 정당화한다. 그 관계에서 선물이 아닌 바로 자신이 '싸구려'라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강유정 문학평론가는 추천의 말에서 "'쇼룸'의 뜻처럼, 이케아의 공간은 우리가 갖고 싶도록 유도된, 전시된 판타지이다... 60개의 쇼룸은 평균의 공포를 확산시킨다. 쇼룸에는 있지만 우리의 방에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불안을 선사한다. 거기에 있지만 내 방에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평한다. <민음사·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외설 최현배 평전

김삼웅 지음

"말에는 우리 겨레의 정신이 담겨 있다."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일에 생을 바친 외설 최현배(1894-1970)의 말이다. 최현배의 '나라사랑'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는 일이었다. 말과 글에는 그 겨레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일제가 민족 말살정책으로 조선어를 금지시킨 것도 같은 이유다. 독립운동사 연구가이자 신홍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삼웅은 '외설 최현배 평전'을 통해 그가 왜 그토록 우리말·글을 지키는 데 헌신했는지 돌아본다. 경남 울산에서 나고 자란 최현배는 조선어학회 창립과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에 참여했다.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복역한 뒤 광복 후 교과서 행정의 기틀을 잡았다. 연세 대 부총장 등을 역임한 그는 '우리말본', '한글갈', '글자의 혁명' 등의 책을 썼다. 그의 발자취는 1장 '출생과 성장·교육과정'으로 시작해 '조선민족 광생의 도' 탄생 배경, 그가 육종에서 지은 시조와 박정희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그의 노력 등으로 구성됐다. "최현배와 한글학회 회원들의 눈물겨운 한글 지키기 투쟁은 일제, 미군정, 이승만 정권에 이어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한글 대신 일본어를 상용하던 사람들이 미군정기가 되자 재빨리 영어 상용론자로 변신했고 이들의 영향력은 박정희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말·글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지은이는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우리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말 지키기 선열들의 노고를 생각해보자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채륜·1만9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늬곤 못 가라!!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일시 2018. 10. 21(일) 09:30~
장소 모교 운동장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노동일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